

행복한 책임기

함규진의 '왕의 투쟁' <페이퍼 로드 >

왕은 절대 권력의 상징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투쟁했다고 하는 가정은 자못 흥미롭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누구와 투쟁했을까.

조선조 가장 명군(名君)이라고 추앙받는 세종과 정조, 가장 실패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연산군과 광해군을 통해 저자는 인간으로서 고뇌한 왕, 신권(臣權)과의 경쟁을 통해 왕권을 확립하려고 투쟁한 통치자의 진면목을 자세한 사료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낸다.

연산군은 생모가 사약을 받은 사실을 알고 폭군으로 변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폭력 정치는, 무오사화를 기점으로 왕권을 간섭하려던 신진사대들을 몰아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광해군은 적자(嫡子)가 아니라는 자책감과 오랜 세자생활을 거친 탓에 태생적으로 안전에 위협을 느낀 군주였다.

편 청탁도 받지 않았다.

조선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네 가지 노릇을 정의하자면 지금과 별다른 다르지 않은 듯하다. 첫째, 성학(聖學)에 힘쓰며 수신(修身)에 전념할 것. 둘째, 개인적인 취미와 오락을 멀리할 것. 셋째, 사치에 빠지지 말 것. 넷째,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할 것. 넷째, 언로(言路)를 열고 신하들의 간언을 용납할 것.

리더십은 자연스런 추종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최고지도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은 공식라인을 벗어난 자신의 측근을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사막한



“지하에 모든 건물 신기하고 웅장함에 놀랐다”

옛 전남도청 자리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공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08년이었다. 3만9000여평에 이르는 광활한 부지에는 문화창조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전당이 어떻게 지어지고, 운영되는 지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현장 탐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사 현장을 공개하는 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당은 연구, 교류, 창작, 공연,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시설로 현재 3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개관한다.

첫번째 탐방행사가 열린 23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시아문화마루에 50여명의 탐방단이 모였다.

이날 탐방에는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생과 이무용 지도교수, 광주 남구장에인협회 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대학생 기자 등 단체 참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영상 자료로 전당에 대한 개관을 소개받고 난 후 안전모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전당과 같은 대규모 공사 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시공사 측에서는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건물과 공간들에 대한 설명은 정영래 감리단장이 맡았다.

전당은 건물들이 지하로 들어가 있



시민들 아시아문화전당 첫 탐방... 50여명 참가
원통형 중극장·에너지 효율 높은 디자인 '인상적'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 진행... 1시간 소요

는 구조다. 임시로 놓인 철골 계단을 내려가니 넓은 광장과 건물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광장은 전 세계인이 소통하는 새로운 '광장문화'를 만들어갈 공간이다.

가장 먼저 안내된 곳은 아시아예술극장. 2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518석의 중극장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고 정 무대 없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가변형 극장으로 운영되는 대극장은 규모가 대단히 컸으며 중극장은 원통형의 외관이 인상적이었다. 광장 지하로 내려가서

접한 복합전시관과 예술극장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로비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콘텐츠제작센터 등이 들어서는 문화창조원은 건물 크기도 방대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또 1980년의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민주평화교류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도 관심을 모았다.

궁금증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전당이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보니 많은 비가 왔을 때의 대비책

이나 보온이 결정된 전남도청 건물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탐방에 참가한 최영석(56)씨는 “그냥 지나치면서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안으로 들어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다”며 “앞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진단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중인 최승기(동신대 4년)씨는 “워낙 부지가 넓고 모든 건물들이 지하에 있어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에 개인 참가자가 적은 점은 아쉬웠다. 또 효율적으로 건물과 공간을 소개하는 전략이 없어, 다소 산만하고 장황한 설명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3일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현장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하에 위치한 문화창조원 건물 안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탐방에 참여하려면

추진단은 6월부터 11월까지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 '문화마루 카페'(http://cafe.naver.com/asiaculturemaro)에 접속해 '건립 현장 탐방신청' 게시판의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쪽지나 이메일(sudeng@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5인 이상 단체는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회당 선착순 100명 내외로 신청을 받으며 탐방 시작 시간 15분전까지 문화마루(홍보관)로 도착해야 한다.

공사 현장임을 감안, 편안 신발을 착용하는 게 좋으며 하이힐을 신은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참가자들에게는 작은 기념품도 증정한다. 문의 062-236-0481, 0730.

권력의 정점, 고독한 사투

하지만 신하들이 '진명배금'을 주장할 때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 추구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 외교 실정과 비교하면 오히려 유능한 외교관이라고 재평가할 수 있다. 명이 망하고 후금이 청나라로 이어졌던 역사가 광해군의 정책이 더 현실적이었다고 증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직 환경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존재와 추호도 여김없이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서이기도 하겠다.

저자는 측근을 키우며 '진정한 측근'을 키우라고 조언한다. 측근 정치의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대부분 사람이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인물을 가까이 두라고 제시한다.

세종은 측근 정치를 하지 않았기에 부작용도 없었고 깨끗했다. 왕권확립의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이기에 신권과의 투쟁 또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과 한글창제는 바로 그 고독한 싸움의 산물이었다.

역대 대통령마다 임기 말에 터져 나오는 측근 비리를 보면서, 사사로운 이익 다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순수한 투쟁, 그 결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지도자의 고독을 보고 싶은 것은 나만의 바람일까.



차노휘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좋은 동료들과 음악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광주시향 30년 임흥규 부지휘자 고별무대- 내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 임흥규(57) 부지휘자에게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5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곡이다. 광주시향 부지휘자가 된 후 정거연주회에서 처음 연주했던 곡이기 때문이다.

30여년 동안 광주시향에 몸담았던 임씨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고별 공연을 끝으로 광주시향을 떠난다.

“오랫동안 좋은 곳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음악할 수 있어서 참 행복

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향을 떠나기는 하지만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라 또 어디서든가는 만나고 그러겠지.”

광주시향 창단 멤버로 활동하다 대학 진학을 위해 잠시 휴지기를 거친 후 다시 광주시향에 들어간 임씨는 10년은 비올라 주자로, 10년은 단무지 주자로, 10년은 부지휘자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시향을 지켜왔다.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임씨는 조선대의

대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며 처음 지휘와 인연을 맺었고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불가리아 소피아국립아카데미 지휘과에서 2년간 수학했다. 이후 광주시향뿐 아니라, 목포시향, 불가리아 바르나 심포니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를 맡았다.

“시향에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역시 관객들로부터 ‘연주가 좋았다’는 평을 들었을 때죠. 서울 예술의전당 공연 때 연주가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죠. 남아 있는 후배들이 광주시향의 명성을 잘 이어갔으면 합니다.”

임씨의 고별연주회는 모차르트의 곡만으로 꾸며진다.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을 시작으로 오보에 연주자 이미성(서울시향 오보에 수석)씨가 협연하는 ‘오보에 협주곡 K.314’, 교향곡 41번 ‘주피터’가 레퍼토리다.

임씨는 또 가수 패티김의 가요 ‘이별’을 모차르트 곡 풍으로 편곡한 작품을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들려줄 예정이다.

임씨는 광주학생관현악단, 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향 실내악단 지휘를 맡고 있으며 광주대에 출강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